

주최·주관 장수미술관

후 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발행인 장수미술관 관장 이서하
장수미술관 학예사 박성숙

발행처 장수미술관

 장수미술관
JANGSU ART MUSEUM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로 317
063-351-3383 / www.jsmuseum.kr

김인영초대전

Pretending- image

2024.
04.29.월 - 06.27.목

장수미술관 제 12전시실

 장수미술관
JANGSU ART MUSEUM

김인영초대전

Pretending- image



장수미술관
JANGSU ART MUSEUM

생장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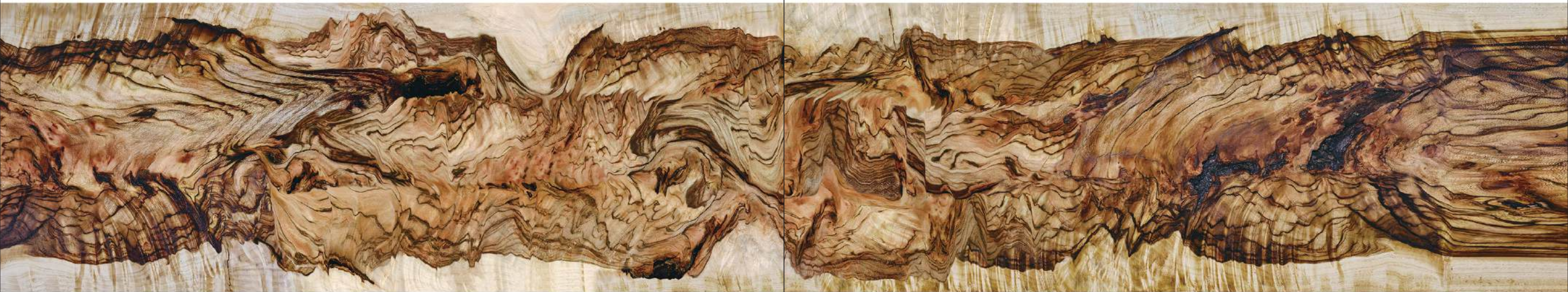
84x151cm, 63x140cm, 56x141cm /
나무에 디지털 프린트 / 2024



쌍둥이 Twins

가변설치 / 나무, 인견쉬폰에 디지털 프린트 / 2024





쌍둥이 Twins

가변설치 / 나무, 인견쉬폰에 디지털 프린트 / 2024



쌍둥이 Twins

가변설치 / 나무, 인견쉬폰에 디지털 프린트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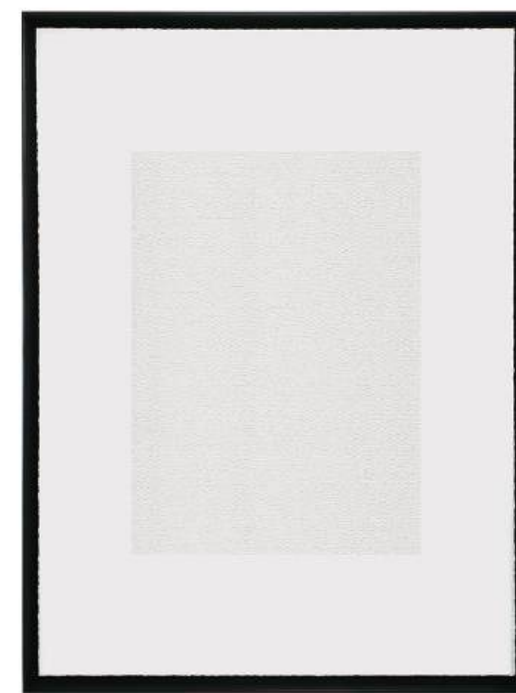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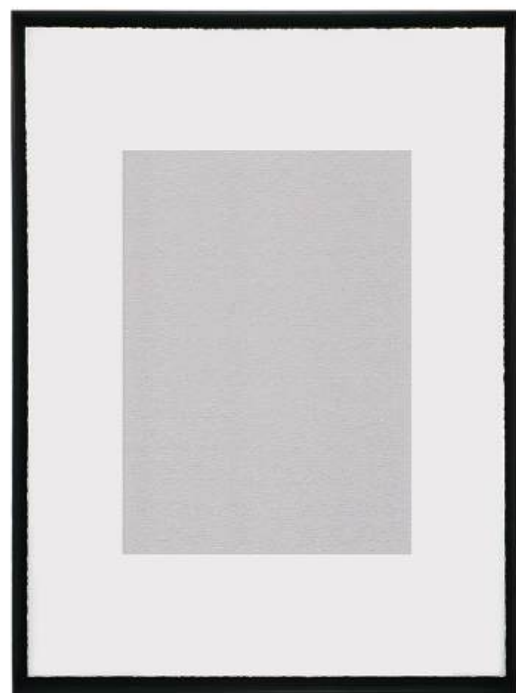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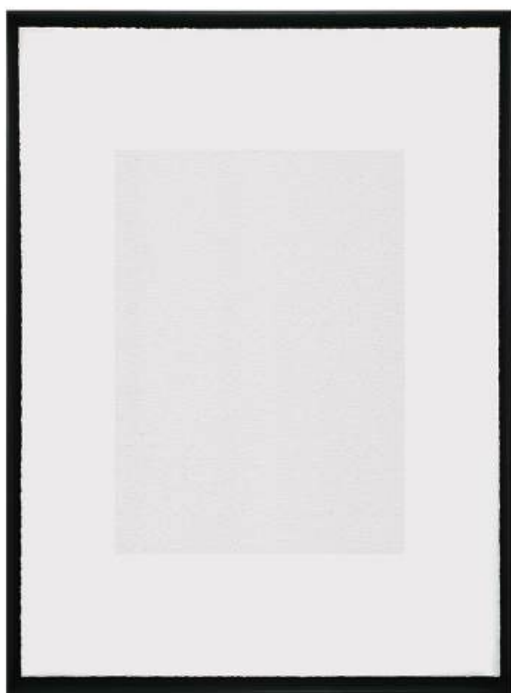
분열법 Clone

가변설치 / 나무에 디지털 프린트 / 2024



자아상 Self-image

120x60cm(4EA) / 나무에 나무 이미지 프린트 / 2024



자아상 Self-image

107x78cm(4EA) / 종이에 종이 이미지 프린트 / 2024

Profile

김인영

202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서양화 전공 석사 졸업
20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학사 졸업

전시경력

- 주요 개인전
- 2023 The Body of Bodiless Code, 우석갤러리, 서울
- 2021 유도된 이동, 아트스페이스라운숄, 경기
- 2021 변환지점, 인천아트플랫폼 윈도우 갤러리, 인천
- 2019 리-앨리어싱, 인사미술공간,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 2023 환승: 한국과 영국의 추상화와 디지털화, 주영한국문화원, 영국
- 2022 연속과 분절,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21 Drag & Draw, 소마미술관, 서울
- 2020 당장의 질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20 판화, 판화, 판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9 차이의 번역, 주홍공한국문화원, 홍콩 외 다수

작가노트

디지털 시대인 지금의 사회는 정교한 디지털 시각 기술을 사용해 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의 복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진보를 거듭해왔다. 이는 대상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려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물질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혼재된 이중적 시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접하는 물질 기반의 정보와 디지털 기반의 정보는 이제 그 배경과 정체성의 구분 없이 마구 섞여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을 구성한다. 디지털 시각 세계가 물질세계의 시각적 대상들을 대체하고 대리한다는 감각은 나날이 발전하는 모사의 기술에 힘입어 더욱더 강력해졌고, 이제 우리는 무엇인 ‘척’하는 이미지를 진짜인 ‘셈’ 친다.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 기꺼운 믿음은 균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미심쩍음은 매끈한 바닥에 돌부리처럼 물입의 길을 막고 나를 멈춰 세운다. 정말 디지털이 매개하는, 물성에 대한 시각적 재현은 원 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한 것인지, 그 변환의 과정에 일어나는 누락과 변형에 우리가 무심하게 눈 감는 것은 아닌지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본다. 재고의 과정에서 실재와 재현을 등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모사에 대한 박한 가치 판단을 되새길 생각은 없다. 다만 디지털 매체가 매개된 불완전한 재현과 그것을 눈앞에 둔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흉내 내는 것들’을 소환한다. 자신과 다른 존재를 빼닮으려 하는 이미지와 스스로의 ‘상(像)’을 뒤집어쓴 사물들은 ‘흉내 낸다’는 사실을 감출 생각이 없다. 기꺼이 까발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무엇인 척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실재적이지 않느냐고.

Mail : cnsdu71@naver.com
sns : www.kiminyoung.com / www.instagram.com/kiminyoung0